

## 황금 삿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국제교류원 ‘마리나 라케예와’입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에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삿포로의 ‘가을의 보물’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삿포로는 9 월이 되어서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9 월이라고 하면 벌써 가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뭇잎의 색이 변하고, 거리의 풍경이 물드는 것을 매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단풍’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단풍이 가장 빨리 물들며, 홋카이도에서 가장 표고가 높은 아사히다케에서는 9 월에 나무들이 물든다고 들었습니다. 삿포로에서 단풍이 유명한 장소들 중, 제가 추천하는 곳은 조잔케이입니다. 온천에 들어가서 단풍을 즐기는 것은 일본에서 보내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단풍은 ‘紅(붉을 홍)’인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황금 가을’이라는 표현이 있어, 가을의 색이라고 하면 당연히 노란색일 것 입니다. 잎이 노란색이 된 자작나무 숲 풍경은 매우 러시아다운 모습 중 하나이며, 제가 단풍보다 황금 나무에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삿포로에 온 것은 10 월 초순으로 가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처음 일본에 살게 되면서 많은 발견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고향인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볼 수 없는 은행나무였습니다. 분명 여름에 봤다면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가을에 색이 변하여 마치 ‘황금’이 된 은행나무를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삿포로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마치 태양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홋카이도대학의 은행나무 가로수일 것

입니다. 70 그루의 은행나무가 도로의 양쪽에 약 380m 줄지어 있으며, 이 은행나무 가로수의 노란 단풍잎은 홋카이도대학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을 비추는 기간도 있어, 그 때는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일본은 '황금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르코폴로에게 일본을 소개한 분은 가을에 일본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삿פור의 가을은 홍엽(紅葉) 뿐만 아니라 황엽(黃葉)도 즐겨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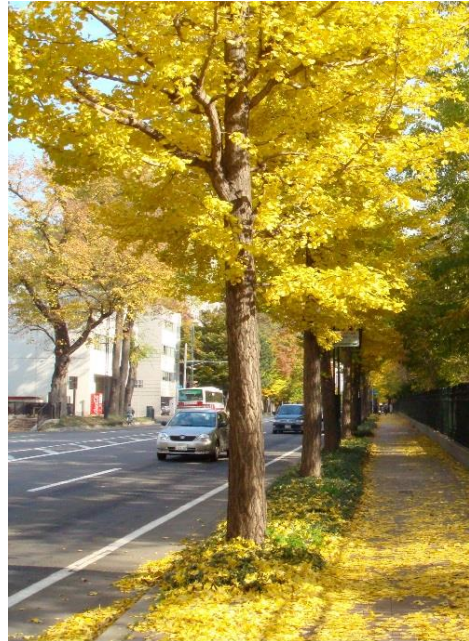
<홋카이도대학 새로운 정보>

<http://www.hokudai.ac.jp/news/> (일본어)

<조잔케이 온천>

<http://jozankei.jp/> (일본어)

<http://jozankei.jp/en/> (영어)



◆ 문의처

삿פור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060-8611 삿פור시 주오구 기타 1 조 니시 2 초메

TEL : 011-211-2032、FAX : 011-218-5168

E-mail:kokusai@city.sapporo.jp